급식비 못내는 학생 급증

경기침체 여파…지난해 1학기 광주 966·전남 525명 체납

전남 2년만에 3배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 압박때문에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에서 월 3만~4만원의 학교 급식비를 제때 못 내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26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 지난해 1학기 급식비를 체납한 학생은 966명이다. 이는 2008년 한해 885명(체납액 2억2천600만원)보다 9%(81명)가 증가한 것이며, 2007년 751명보다는 215명이 늘어난 수치다.

결식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지원도 지난 2008년 2만8천912명(104억 5천만원)에서 2009년 3만3천395명(143억 7천만원)으로 4천483명이 증가했고, 지원액도 1년만에 39억 2천만원이나 늘어났다.

전남지역도 지난해 같은 기간 급식비 장기 체납학생은 525명(체납액 6천 100만원)으로 전년 466명보다 59명이 증가했다. 특히 전남은 2007년 158명에 불과했던 체납학생이 2년 만에 3배 가량 급증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전체 학생의 10%가량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한 달 3~4만원의 급식비 연체 학생이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빈곤 가정이 크게 늘어난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각급 학교와 교육청은 급식비 장기 체납학생의 경제 여건 등 가정 환경을 조사하는 한편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급식비 납부 독려로 체납 학생들은 또 한번 상처를 받고 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한 학부모는 "오죽 힘들었으면 자식의 급식비를 체납했겠느냐"면서 "아이들도 체납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돈 때문에 동심이 상처를 받을까봐 마음이 크게 상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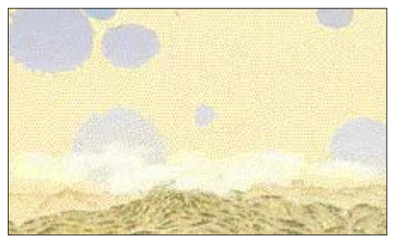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급식비 장기 체납학생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학교의 급식 운영에도 부작용이 예상된다.

대부분 직영 체제인 학교급식의 경우 급식비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부족분을 학교 회계에서 보조하거나 급식의 질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학부모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실제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가브랜드위 홍보 광고 이이남씨 작품 표절 논란



이이남씨의 '겸재와 세잔느'(사진 위)와 국가브랜드위원회 광고에 등장하는 물방울이 번지는 효과 등이 유사해 표절논란을 빚고있다.

동서양의 명화 속 인물들이 한 화면에서 만나는 '디지털 명화 패러디' 기법 등을 놓고, 광주 지역 유명 작가와 광고 기획사가 표절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미디어 영상 아티스트 이이남씨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TV를 통해 공개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글로벌 에티켓 홍보광고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창작기법인 ▲동서양의 고전 작품 속 인물이 한 화면에서 만나게 하는 구성 ▲물감이 번지는 듯한 화면 효과 등이 이 광고에 그대로 도용됐다고 밝혔다.

이 광고에는 디지털 기법을 통해 김홍도의 '씨름도' 와 고흐의 '우체부 조셉' 고갱의 '타히티의 여인' 등 유명 서양화 속 등장인물들이 서로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씨는 이 광고가 자신의 작품인 '꿈3'(2007년작), '겸재와 세잔느'(2008년작), '모네와 소치의 대화'(2008년작)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고대행사인 엘베스트(Lbest)는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로 기존의 명화를 변형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기법은 광고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며 도용 의혹을 일축했다.

또 '물방울이 번지는 듯한 표현이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수묵담채화의 색깔이 번지는 효과를 사용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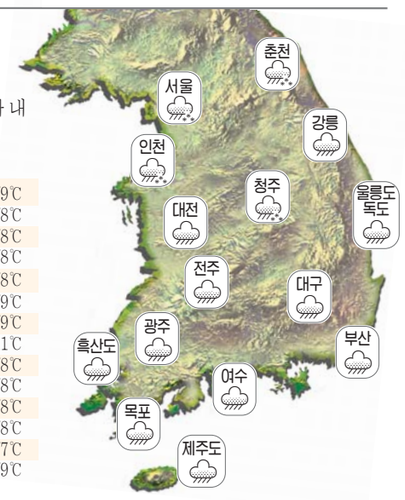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5분 해짐 17시 55분 달뜸 14시 25분 달짐 04시 38분

유리창엔 비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광 주	흐리고 비	-1/9℃
목 포	흐리고 비	0/8℃
여 수	흐리고 비	-1/8℃
완 도	흐리고 비	-1/8℃
구 례	흐리고 비	-5/8℃
해 남	흐리고 비	-2/9℃
장 흥	흐리고 비	-3/9℃
고 흥	흐리고 비	-5/11℃
순 천	흐리고 비	-2/8℃
영 광	흐리고 비	-2/8℃
진 도	흐리고 비	-1/8℃
전 주	흐리고 비	-2/8℃
남 원	흐리고 비	-6/7℃
흑산도	흐리고 비	3/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1.5m
먼바다	남서~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먼바다	남동~남	1.0~2.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5~2.0m
먼바다	남서~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먼바다	남서~서	2.0~3.0m

	밀물	썰물
목포	11:50 23:45	04:21 17:39
여수	07:04 19:08	00:09 13:1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목)	29(금)	30(토)	31(일)	2/1(월)	2(화)
날 씨						
최저/최고	3/7	-3/5	-3/6	-1/7	-3/6	-4/5

시내버스·지하철·택시·2순환도로·공영주차장

8월부터 카드 한 장으로 'OK'

광주 유페이먼트 시행

오는 8월부터 카드 한 장으로 광주지역 내 시내버스와 지하철, 택시, 제2순환도로,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9월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유통·서비스 분야까지 결제 대상이 확대된다.

광주시는 27일 롯데정보통신, 마이비, 남양건설, 광주은행 등 4개 기업이 참여하는 롯데정보통신컨소시엄과 광주지역 교통·유통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유페이먼트'(U-Payment) 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약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유페이먼트 서비스망이 구축된다.

유페이먼트 기반구축사업은 시내버스 등 공공분야와 유통서비스 등 민간분야에 현금 없이 통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유페이먼트 카드를 발급해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8년까지 18년간 자본금 100억원과 차입금 200억원 등 총 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페이먼트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인 전자금융산업을 선점 육성해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산유원지 녹화사업

나무 16만 그루 심어

광주시 동구는 오는 5월까지 산수오거리에서 신양파크호텔, 지산유원지를 잇는 3㎞ 구간에 사계절 꽃이 피는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산유원지 녹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구간에는 총 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느티나무 등 38종 16만5천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된다. 또 지산동과 산수동 주택지 구간은 좁은 보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나무울타리와 화분을 배치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촉촉한 겨울비

광주·전남 최대 30㎜ 내려

27일 광주·전남지역에 최대 30㎜의 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7일 광주·전남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낮부터 비가 내렸다가 밤 늦게부터 갤 것"이라고 26일 예보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지역과 광주에 5~20㎜, 여수 등 남해안 지역에 10~30㎜ 등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전날보다 높겠다.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돌풍과 함께 물결도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돼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